

멕시코의 석유산업 현황

멕시코는 석유개발 및 정제능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상·하류부문에 대한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88년부터 추진중인 경제개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①상·하류부문에 대한 투자촉진 및 해외자본 유치노력 확대 ②세계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③원유생산비 절감등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생산의 확대 및 국내의 경질제품 소비증가에 따른 정제능력 확충을 위한 외국자본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는 '88년 이후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와의 국제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 무역장벽 제거, 국내산업의 활성화, 만성적 인플레이션의 조절 및 외채감축을 목표로 새로운 경제개혁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의 저해요인중의 하나로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국내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하되었고 이러한 빈약한 투자환경이 석유산업에

도 상당부분 파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89년 멕시코의 유정수는 '80년 대비 81%가 감소하였고 탐사정 및 개발정수도 49%, 77% 감소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석유생산은 '86년이후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하여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걸프사태로 인하여 '90년 석유생산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신규 탐사 및 개발이 정체되어 있고 정제설비능력 또한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내제품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450억배럴로 가채년수는 약48년에 해당되며, 이중 약 1/4에 달하는 110억배럴이 Chicontepec 유전지대에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7년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멕시코의 석유생산은 '90년에 전년대비 0.9%증가된 2.54백만b/d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90년의 중질유 생산은 '87년 대비 3.3% 증가된 1.21백만b/

멕시코의 석유생산추이

(단위 : 천B/D)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重 質 油	1,126	1,025	1,178	1,177	1,200	1,217
經 質 油	1,505	1,402	1,363	1,329	1,313	1,321
지 역						
해 양	1,703	1,554	1,686	1,687	1,742	1,785
내 륙	927	874	855	820	771	753
계	2,630	2,428	2,541	2,507	2,513	2,538

<자료>PEMEX, 1991. 4

멕시코의 석유소비 및 정제능력 현황

(단위 : 천B/D)

	1987	1988	1989	1990
석유 소비	1578	1601	1754	1885
정제 능력	1349	1354	1354	1514
- 2차 정제	405	425	425	425
- 설비고도화율 (%)	30%	31%	31%	28%

<자료> Oil&Energy Trend, Int'l petroleum Encyclopedia

d인 반면 경질유는 '87년대비 3.1% 감소된 1.32백만b/d로서 중질유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Campeche만을 중심으로 해양유전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탐사는 외국기업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발 및 생산은 국영화사인 PEMEX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누적되고 있는 외채 및 투자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상·하류부문의 개방확대를 통한 해외자본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시회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상·하류부문에 대한 \$170억의 장기투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 중 56억달러를 미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향후 5년간 상류부문의 개방을 담보로 차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정제능력 부족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90년 현재 정제능력은 석유소비의 8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의 경질유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경질제품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현재 28%에 머무르고 있는 설비고도비율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질제품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제능력의 부족을 보전기위한 제품수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7.5억달러의 차관을 도입, 접촉분해 및 탈황시설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고 1995년까지 30만b/d의 정제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제능력의 제고가 기존 시설의 확대를 통해서인지 혹은 신규 플랜트의 건설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결정은 보류된 상태이다. 따라서 정제설비 확대계획을 통한 하류부문의 개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PEMEX는 석유화학 제품생산에 있어서도 독점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수입에 의존해 왔던

폴리에틸렌 및 MTBE의 생산에 국내·외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연산 50만톤 규모의 MTBE 생산설비가 이탈리아의 ENI와 독일의 Ferestal사의 전액 출자 형식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수의 일본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의 외국기업의 투자범위를 총출자액의 40%로 제한하던 것에 비해 전액 출자를 허용한 것은 하류부문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사정에 비추어 볼때 지속적인 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한 자원확보와 국내 석유제품 소비 증가에 따른 정제능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멕시코는 현재 미국과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 석유부문에 대한 개방을 제외시킬 계획이지만 미국은 멕시코 석유시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내석유산업의 보호 및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 축소를 고려해 볼때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석유시장 개방은 다소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멕시코는 국내경제여건의 악화로 석유생산이 신규탐사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본부족으로 정제능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총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했던 석유수출은 '86년이후 급減하기 시작, 현재는 약30%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더우기 정제능력의 부족으로 상당량 석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수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생산의 확대 및 정제능력이 제고가 필요한 멕시코로서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함으로써 최근 투자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상·하류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中國의 석유산업 현황

최근 中國은 석유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새로운 유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신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내륙의 석유탐사·개발에 외국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中國이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단독개발로 투자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희망과 서방기업의 경영권 행사로 확산될 수 있는 자본주의 영향에 대한 우려, 그리고 中國 석유공사의 관료적 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석유수요에 반하여 기존 유전들의 한계 유전화로 새로운 유전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中國의 서방기업 진출 억제정책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中國의 에너지공급압박은 점차 深化되어 가고 있다. 에너지부의 전망에 따르면 2000년의 1차 에너지수요는 1,400 - 1,700Mtce인데 반하여 국내공급 가능량은 1,300 - 1,400Mtce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유생산도 작년의 2.7백만b/d에서 제8차 경제개발 계획년도(1991-1995년)에는 2.8백만b/d의 소폭 증가만이 예상되고 있어 생산의 정체현상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에 석유의 수요는 석탄소비 중심의 경제계획과 주요 外資獲得源으로서

석유의 역할(1989년 기준 에너지수출액의 87%)을 축소시킨다 하더라도, 계속된 경제성장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1989년부터 석유제품이 수입초과 되었고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석유화학산업의 중점 육성도 요구됨에 따라 하류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어 원유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유전개발을 서두르지 않는 한 中國은 2000년대 이내에 석유의 純輸入國으로 전락될 것으로 보인다.

中國은 현재 주요 유전들의 원유생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거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토면적의 절반이 석유매장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중국 최대 유전이며 원유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Daqing(大慶)유전은 1976년 이후 생산수준이 100만b/d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제2, 제3의 유전인 Shengli(勝利)유전과 Liaohe(遼河)유전도 새로운 투자와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한 역시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에는 석유발견 가능성이 높은 퇴적분지가 300여곳으로 그 면적은 450만km²에 달하고 있고(중국 총면적은 960만km²) 120만km²에 달하는 대륙붕도 역시 60만km²가 퇴적분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석유탐사·개발을 추진하면 획기적인 석유생산의 증대도 가능

하다.

그동안 中國은 석유의 탐사·개발에 서방기업의 직접진출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대륙봉개발이나 內陸의 소규모 유전에만 국한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대륙봉은 1980년 중국의 개방화 이후 45개의 석유사들이 3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탐사·개발하였으나 보하이만과 남해만에서 소규모의 유전만이 발견 되었을 뿐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1986년 외국기업에 대한 內陸의 석유탐사·개발억제정책이 일부 완화된 이후 서방기업들은 중국 18개 省의 유전지대중 11개 省에서 탐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주로 소규모유전이나 경제성이 낮은 곳들 뿐이며 지금까지 개발과 생산 협정이 체결된 것은 Dongting지역에서 뉴질랜드 Petrocorp社가 주도하는 큰소시움社 하나뿐이다.

中國이 서방기업의 직접진출을 억제하는 이유는 단독개발로서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中國정부의 기본 정책노선과 서방기업의 經營權 행사로 확산될 수 있는 자본주의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석유개발의 주무부처의 中國石油公司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방식도 무시 못할 원인중에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石油公司 관료들은 中國 최대인 Daqing 유전을 비롯한 주요 유전들이 대부분 자체기술로 개발된 점과 80년대 이후 서방기업의 대륙봉 개발실적이 저조하였던 점을 들어 서방기업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경시하려는 풍조가 있다고 한다. 서방기업들은 이러한 경시풍조가 탐사·개발의 공을 외국기업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관료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이 개발될 유전들은 기존의 유전들이 산업의 중심지인 동부지역에서 주로 개발된 것과는 달리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여건은 과거보다 크게 악화되어 있다. 중국이 그동안 석유개발의 노후화가 축적되었더라도 지금의 재정능력과 기술로는 단독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서방기업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中國의 직접진출을 노리는 서방기업과 독자개발을 고집하는 中國石油公司사이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은 서북지역에 있는 Xinjang(新疆)의 Talim(塔里木)盆地이다. Talim盆地는 면적이 프랑스보다 크고 석유의 잠재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적인 유전가능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세계 제2의 규모의 사막이 있는 등 기후조건이 열악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가 생산되더라도 소비지와 항만이 있는 곳까지 석유를 수송하려면 무려 30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필요하다. 관련 이러한 사업을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중국측은 이미 이 地域에 십만여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석유공사의 강력한 요구로 개발예산이 1989년부터 2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올해에는 중국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로 대폭 감축되었다.

아직까지 中國은 내륙개발에 외국기업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자재원의 부족과 장비의 老朽化등을 극복하면서 급증하는 석유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륙봉 개발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을 허용한 것과 같이 내륙개발에도 외국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최상의 타개책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中國은 지난 4월 日本石油公社와 Talim 탐사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질조사 협정을 체결한 바있다. 서방의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를 내륙개발에 대한 문호개방의 첫단계로 보고있다. 中國정부에 대한 서방기업들의 계속된 로비활동과 압력도 中國측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中國특유의 민족성과 천안문사태 이후 다소 경직된 정치여건에 비추어 볼때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은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